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64번째 이야기]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삶의옥합" 손유나)



오랜만에 인사합니다.평안하지요~

저희 부부는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잘 지내고 있고 세 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둘째는 찬양 섬김 위해 즐겁게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드럼을 배우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사역 보따리를 풀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밝이 묶였던**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믿음을 깨워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아부 출산 부흥

태어날때 저체중과 무호흡증으로 고생했던 예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첫돌을 맞이하고, 신혼부부 가정중 한가정은 출산을하고, 한가정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애기 엄마는 목욕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빨리 나왔다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산모 반찬과 미역국을 싸들고 찾아가 올리지 않고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아들 키우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수해주었죠^^ 그후 일주일에 한번씩 아기랑 함께 저희집에 와서 놀고가고 애기아빠 야근 할때는 아기랑 와서 자고 가기도 한답니다.



할아버지 교회 등록

반찬과 과일도시락을 배달했던 00 어르신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시고 찾아뵙기를 여러차례했던 어느날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마음밭이 순수하신 어르신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 할 수있기를 기도합니다. 몇몇분께 간식도시락과 식료품을 배달하고 복음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전도 이야기

관계전도하는 분들, 연약한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교회로 자주 찾아오셔서 밥상모임을 합니다. 매일 노방전도를 할때보다 밥상 공동체 모임이 조금 더 힘이들지만 따뜻한 한끼 대접하며 그분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할수 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엔 손이 바쁩니다. 1년동안 식혜전도할때 사용할 생강 손질을 하고, 바다바람 맞은 친정표 유자를 받아 유자청을 만듭니다. 정성담은 것들을 혼자사시는 분들과 이웃들과 나눔이 큰 기쁨입니다



교회학교 이야기

교회학교 아이들은 한명씩 하교시간에 맞춰서 학교앞 심방을 합니다. 햄버거 데이트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데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나눈답니다. 귀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학생때의 건강한 생각과, 바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대간 청년들은 휴가 나올때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맛난 밥상 모임을 합니다. 대근, 시준,지현,길섭이가 좋은 전우들 만나서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 성문교회 안에서 다시 믿음을 키워나가길 기도합니다.



00자매 이야기

지적장애를 가진 00자매는 가정에 일이있어서 몇달전부터 교육관에서 지내고 있었고 2주전부터는 체험홈에 들어가서 금요일에만 와서 지내고 갑니다. 그자매가 있는동안 복지관 친구들이 놀러오고 지인들도 찾아와 지내고 가는데 그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때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체험홈에 잘 적응하고 가족들의 집 문제도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은 자매의 언니가 교육관에서 지낼때 현재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할때마다 눈물과 회심이 있었습니다. 00자매님이 하나님을 믿고 동생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수 있도록 기도 합니다.



추수 감사절

코로나 전에는 이웃 초청, 장기 결석자 초청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상에 꽃과 곡식과 과일은 어느 해 보다 풍성했습니다. 시댁 조카들이 준비한 화분과 꽃, 시댁에서 가져온 고구마와 감, 집사님 밭에서 가져온 무와 배추, 신혼부부 가정에서 쌀 한포대, 제주도에서 공수한 굴, 친정집 유자, 새신자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수박 메론 파인애플, 집사님이 가져오신 배와 사과,... 한해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봉지봉지 나눠담아서 성도님들 드리고 관계전도하는 분들과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건강한 육신과 생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우리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며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부부의 기도이고 소망이며 모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1. 코로나로 인해 말씀공부, 전도,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소그룹으로 말씀공부, 관계전도, 소그룹 기도를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오전 11시 통합예배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 차량 봉사자와 찬양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1시간 정도 주일 아침에 운전하는데, 11시 예배 시간을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유아세례, 중학생(학습,입교), 청년(세례), 장년부(학습3명) 등 학습·세례·입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올해 7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에 두 젊은 가정 부부가 있습니다. 두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한 남편은 직장 때문에(피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한 남편은 무신론자입니다. 기도바랍니다.